"민간특례사업 도시공원 해법"

익산시, 기후변화 대응 도심 속 나무심기 중요성 강조

재정여건 고려한 숲조성… 인구유입 시너지 효과 기대

정헌율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및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도심 속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친화도시를 다시 한 번 표방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3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민간특례사업은 기존의 공원을 훼손하고 개발해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공원구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조성하지 못한 공원을 우리시 여건에 맞춰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정까지 해놓고 20년 동안이나 공원이 조성되지 못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우리시는 숲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현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민간특례사업이라는 최적의 대안을 찾은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민간특례사업으로 70%정도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도심공원을 낀 좋은 입지로 인해 주변지역 인구유입에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익산시의 경우,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19곳으로 면적은 380만㎡이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4,000억원에 달한다. 익산시는 일몰제로 도심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를 활용한 해법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인근 시군에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정헌율 시장은 올해 국화축제는 완전한 취소가 아닌 컨셉 변경이라며 시민들만은 충분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과 같은 방식의 국화축제는 취소되었지만, 현재 상황에 맞게 컨셉을 변경하여 시민들만을 위한 국화축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외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중지하되, 시민들만은 도심곳곳에서 국화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식재한 국화들을 전시"하라고 주문하고, "신흥공원 및 핑크뮬리 정원을 조성해 코로나19 위기를 또 다른 도전의 기회로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하절기에는 시기상 나무심기를 할 수 없으니 대신 도심 전역에 화초심기로 변경 추진하고, 화초심기 및 도심 쓰레기 수거 등 도시 경관 이미지 개선을 위해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어촌환경 개선 탄력

'어촌뉴딜 300 사업' 지난해 2곳 이어 올 사업지구 3곳 선정

군산시가 어촌뉴딜300사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며 어촌환경 개선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어촌뉴딜300사업에 올해에도 3개 사업지가 선정돼 지난해 2개에 이어 총 5개의 사업지에 5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군산시 관내 어항 및 어촌환경 개선에 크게 보탬이 될 전망이다.

특히, 2019년 사업 2개 지구(무녀2구항, 명도항)는 주민과 수차례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 조율을 거쳐 올해 1월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조정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사착공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그동안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까지 주민과의 1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의 사업 승인을 득한 만큼 금년부터는 실질적인 공사착공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 착수하는 3개 사업(비안도항, 선유1구항, 장자도항)은 공모사업을 위해 계획한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주민과의 소통과 전문가의 의견 등을 사업 초기부터 적극 수렴해 조기에 해양수산부 승인을 얻어 내실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그동안 2019년 70개어항, 2020년에는 120개 어항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항으로 선정함에 따라 2021년에는 추가로 약 50개의 어항에 대해 공모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금년에는 각 지자체 별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어항개발의 논리를 적극 개발해 최대한 많은 어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김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21일 군산월명체육관 앞

군산시는 자매결연을 맺은 경상북도 김천시 우수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오는 21일 군산월명체육관 앞에서 비대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경상북도 김천시와 군산시는 지난 1998년 자매결연을 맺어 올해로 12회째 농산물 교류를 맺는 등 남다른 우정과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판로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김천시와 군산시의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농산물 판로 확대와 군산시민의 알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김천 우수 농산물 및 군산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행사'로써,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차단 방역을 위해 차에 탄 채로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월명체육관 정문에서 동선에 대한 안내를 받아 주문-결제-상품수령 순으로 부스를 이동하며 진행한다. 또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면판매가 가능한 판매부스를 일부 마련하여 생활속 거리두기 준수사항(마스크착용, 열체크, 소독확인,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직거래판매를 할 계획이다.

직거래행사 품목은 김천시에서 출하된 포도와 자두, 복숭아(5종)와 군산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2종)으로 행사홍보와 구매촉진을 위해 사전주문을 접수받고 있다. 관심 있는 군산시민은 누구나 15일까지 읍면동 및 먹거리정책과(063-454-3043)로 사전주문이 가능하다.

/군산=김판곤 기자

원광대병원, 의사·환자권리보장 평가 '호남권 1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제2차 환자경험평가 결과에 의하면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호남권역 상급종합병원 중 의사 평가영역과 환자권리보장 평가영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환자경험평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로 국민 관점에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중심 의료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2017년에 처음 도입됐다.

원광대병원은 1위를 차지한 의사 평가영역, 환자권리보장 평가영역 뿐만 아니라 간호사, 투약 및 치료 과정, 전반적 만족 평가 등 6개 영역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500병상 이상 병원이 참여한 1차 평가와 달리 2차 환자경험평가부터는 평가 대상 기관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확대 된 것이 특징으로 154기관 2만3,92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여성의용소방대 방역 봉사활동 눈길

버스정류장 19개소 소독 등

코로나19의 확진 환자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군산여성의용소방대(대장 김순자)가 월명중에 이어 소룡동 관내 버스정류장(19개소) 소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에 따르면 군산여성의용소방대가 주민들의 접촉이 많은 버스정류장의 대기의자, 기둥 등을 천으로 닦는 소독을 실시해 이전의 뿌리는 소독보다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순자 대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룡동행정복지센터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소독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자율방역을 위한 방역소독기 대여사업 및 소독제 배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생활 속 방역을 통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전양묵 동장은 "현재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곳곳을 방역하고 있다. 주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 방역의 일상화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여성의용소방대(대장 김순자)가 월명중에 이어 소룡동 관내 버스정류장(19개소) 소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소식통

도서지역 비대면 진료실시

군산시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며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관내 도서지역 5개소 주민 664명을 대상으로 의료상비약, 밴드 등 응급상황시 필요한 의약품 및 소모품, 마스크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배부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방식을 통해 복약지도, 건강상담을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실천을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경로당 담당 주치의제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경로당 임시폐쇄조치가 해제되면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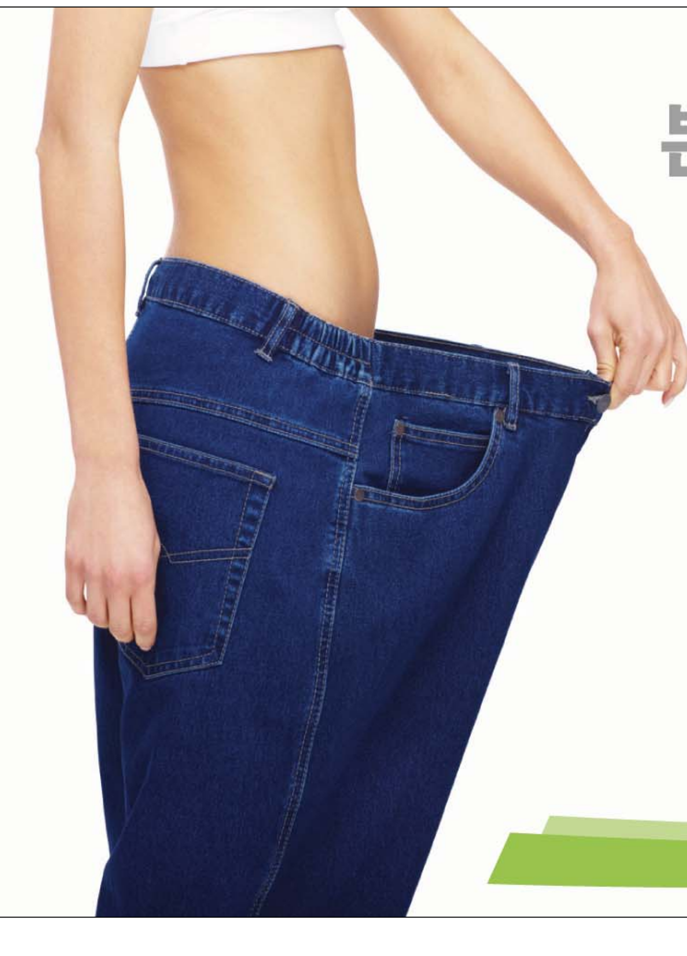
원광대 HK+인문학센터 '그림으로 보는 인문학'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HK+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는 7월 온라인 강좌로 '그림으로 보는 인문학'을 진행한다.

이례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인문학센터는 지난 3월부터 유튜브 채널 '원광대 HKplus 합성인문학TV'를 통해 온라인 인문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시행된 인문강좌 '인문백제3', '인생인문학'에 이어 '그림으로 보는 인문학'을 준비했다. '그림으로 보는 인문학'은 미술사 안에 숨어 있는 인문학을 담았으며, 총 6명의 강사가 참여한다.

강좌는 신정자 익산 W미술관 학예실장의 '명화 속 보석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강산 단국대 예술대학 강사의 '묘합을 통해 바라본 한·중·일 미술세계', 이상훈 도예가의 '도자기 속 동북아시아', 임승한 전 복합문화지구 누에 단장의 '현대미술과 인문학', 김은아 한문화예술센터 연구원의 '조선후기 역사와 미술, 김홍도 VS 신윤복',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장의 '꽃 그림으로 본 선비정신'이 차례로 업로드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